

‘배고픔’과 ‘폭식충동’을 주소로 하는 내담자의 분석과정에서 발현된 ‘자기원형’의 치유적 기능 : ‘뱀’의 상징을 중심으로 한 고찰

용인정신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국융연구원
김 계 희

The Healing Effect of ‘Self-archetype’ Manifested in the Analysis of ‘Hunger’ and ‘Compulsive Overeating’ : Investigation Focused on the ‘Serpent’ Imago

Kye-Hee Kim, M.D.

Department of Psychiatry, Yong-In Mental Hospital, Yongin Korea
C.G. Jung Institute of Korea, Seoul, Korea

ABSTRACT

Objectives : In this study I made investigations how ‘strange hunger’ and ‘compulsive overeating’ threatening the ego could be resolved and healed. And I aim to present a healing model of psychotherapy and analysis as one of methods of treatment for ‘eating disorder’.

Methods : The analysands of this study were outpatients who visited the department of psychiatry of Yong-In Mental Hospital from March 2008 to February 2017 with ‘hunger’ and ‘compulsive overeating’ as their chief complaints. This study is based on the detailed records of the process of analysis including dreams and visions.

Results : 1) Throughout the process of analysis that explore both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dream, vision), hunger and compulsive overeating is improved and healed in all analysands.

2) The Imago of ‘Snake’ appeared in dreams and visions of all analysands.
3) By suffering impulse rather than acting it out, impulse transforms itself into ‘Imago’. As impulse transforms into ‘Imago’ and reveals the ‘meaning’ of it, ego-threatening power of impulse weakens and mood is calmed. And as a result, synthesis of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and creative transformation of personality can be possible.

Conclusions : In some people, ‘hunger’ and ‘compulsive overeating’ are ‘creative impulses’ that aim ‘Self-realization’ which can be fruited as creative transformation of personality and as creative transformation in the relation with the world. ‘Creative impulses’, which often can be experienced as instinctive impulse or emotional suffering unless ego realizes the meaning, reveal the meaning in dreams or visions through ‘Imago’ and ‘Symbol’.

KEY WORDS : Hunger · Compulsive overeating · Imago · Symbol · Analysis.

서론

음식의 섭취량이 부족할 때나 끼니 때가 다가올 때 느끼

는 자연스러운 본능으로서의 배고픔과는 다르며, 의식의 자아를 습격하듯이 위협적으로 찾아들기도 하고, 불안 · 우울 · 두려움 · 허전함 · 그리움 등의 정서적 고통을 수반하기

Received: May 25, 2017 / Revised: June 18, 2017 / Accepted: June 19, 2017

Corresponding author: Kye-Hee Kim, Department of Psychiatry, Yong-In Mental Hospital, 940 Jungbu-daero, Yongin 17089, Korea
Tel : 031) 288-0114 · Fax : 031) 288-0107 · E-mail : happygoo2@hanmail.net

도 하는, 자신의 배고픔이 아닌 것 같이 낯설고 이질적인 것으로 체험되는 ‘이상한 배고픔’과 ‘강박적 폭식충동’이, 분석과정에서 어떤 경과를 취하며 어떻게 해소되고 치유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과정에서 의식과 현실의 상황, 어린시절의 개인사 및 가족사와 더불어 무의식(꿈, 환상)을 함께 지속적으로 성찰해 나감으로써 의식과 무의식, 정신과 신체가 상호간에 어떻게 작용하며 변화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서적 고통을 수반하기도 하는 ‘이상한 배고픔’과 ‘강박적 폭식충동’으로 의식의 자아가 압도되고 고통을 느낄 때(suffering), 무의식으로부터 꿈과 환상을 통해 어떤 ‘상(Imago)’과 ‘상징(Symbol)’이 출현하게 되며, ‘상’과 ‘상징’은 의식과 자아에 어떻게 작용하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피분석자 모두의 꿈과 환상에서 출현하고 있는 ‘뱀’의 상징을 중심으로, ‘나무’와 ‘구(球)’의 상징을 확충(amplification)하고 그 의미와 작용을 이해하고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와 논문을 통해 ‘이상한 배고픔’과 ‘강박적 폭식충동’이라는 증상으로 체험되던 고통의 목적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식이장애’로 분류되고 진단되어온 증상군을 이해하고 조명하는 하나의 관점과 치료방법으로서, 분석의 치유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같은 주제로 향후 이어지게 될 논문들 중 첫 번째 논문이며 개괄적이며 심층적인 조망이기도 하다.

1. 자기(Self), 자기실현(Self-realization)

‘인간이 전체로서 살게 하는’ 창조적 원동력이 인간의 마음 속에 본래 있다. 무의식의 창조적 원동력은 모든 사람에게 태어날 때 이미 갖추어져 있으므로 그 힘으로 인간은 부분적인 삶에서 전체의 삶으로 변화되어갈 수 있다. 이 변화의 과정을 ‘자기실현(Self-realization)’, 또는 ‘개성화(Individuation)’ 과정이라고 한다. 자신의 전체정신을 실현하는 것은 고유한 자기자신이 되는 것이며 그 사람의 개성을 살리는 것이 된다. ‘자기(Self)’는 누미노제의 강력한 영향력을 간직하고 있는 원형이며, 우리 마음 속의 조절자, 치유자, 분열을 지양하고 통일케 하는 자이다. 전체정신의 중심인 ‘자기원형’은 무궁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으며 그 자체로 존재하며 자율적으로 정신기능을 조절하며 전체정신을 실현시키는 원동력이다. 그것은 의식의 중심인 나(자아)에 속하지 않으며 ‘나’와는 다른 내 안에 있는 완전 타자, 하나의 객체정신(object psyche)으로, 자율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한다.¹⁾ 우리 안의 그리스도, 우리 안의 불성(佛性), 혹은 도(道)라고 부르는 것을 모두 심리학적으로 ‘자기(Self)’라는 용어로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²⁾ <자아와 무의식과의 관계>에서 융은 “자기를 ‘우리 속의 신(God-within-us)’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

의 전체 심적 생활의 시초는 어쩔 수 없이 이 점에서 뿔어져 나오며 모든 최고의, 최후의 목표는 그에게로 달려가는 듯하다.”라고 저술하였으며,³⁾ <아이온(Aion)>에서는 “단일성과 전체성은 객체적 가치척도의 최고의 단계이다. 그것의 상징들은 ‘이마고 데이(Imago Dei, 神像)’와 더이상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실현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종교적 과정으로 이에 적합한 종교적 자세를 요구한다. 즉, 자아의 의지는 신의 의지에 순종한다.”⁴⁾라고 저술하면서 ‘자기’의 상징과 ‘신’의 상징은 경험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자기’는 종교체험의 기반이 된다. ‘자기’라는 심적 요소가 집단적 무의식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자아가 그것을 의식적으로 체험하기 전까지는 무력하다. 그러나 일단, 자아가 ‘자기’를 인식하고 체험하면, 주도권이 의식의 자아로부터 보이지 않는 중심인 ‘자기’에로 양도된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는 말로 표현되는 ‘구원의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다.⁵⁾ ‘자기실현’ 과정은 분석을 통해 무의식을 의식화함으로써 촉진되며, 무의식의 의식화는 꿈의 탐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무의식을 의식화하고자 하는 자아의 적극적인 자세로 인해 무의식의 조절자인 ‘자기원형(Self-archetype)’이 활성화 된다. 인간은 의식을 넓히면서 자아에서 자기에게로 다가간다. 자기를 실현하게(Self-realization) 되는 것이다.⁶⁾

2. 꿈의 ‘주관단계’ 해석, 투사의 인식과 철회

융(Jung CG)은 꿈의 해석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객관단계’의 해석이란 현실 속의 외부 대상에 대하여 의식에서 느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꿈이 어떻게 수정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깨달음으로써 외부 대상에 대한 의식의 관점과 태도를 바꾸어 나가는 해석이다. ‘주관단계’의 해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꿈에 나오는 여러 대상이나 사건을, 비록 그것이 현실과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꿈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심리적 요소들과 무의식의 콤플렉스들의 상징적 표현으로 보고 그것을 깨달아 의식에 동화시켜 의식의 시야를 넓히는 해석이다. 이 두 가지 해석은 어느 꿈에나 적용되지만 융은 후자를 더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만일 우리가 객관 단계의 해석만을 한다면 밖의 대상을 향한 무의식의 투사를 충분히 되돌려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없게 되고 언제나 현실에 투사를 통한 관계가 남아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객관단계의 해석은 흔히 주관단계의 해석을 하기 위한 예비 단계인 경우가 많다.⁷⁾ 의식성의 발달과 자기실현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신비적 참여(participation mystique)’ 상태라고도 불리는 ‘주체와 객체의 비분리성’ 상태인 ‘투사’와 그로 인한 ‘무의식적 동일성’ 상태의 인식과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투사’를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으

며 자아의 노력만으로는 힘든 경우가 많다. 분석과정을 통해 의식과 무의식을 함께 지속적으로 성찰하며 꿈을 ‘주관단계’로 해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전체정신이며 전체정신의 중심인 ‘자기(Self)’를 인식하고 인격의 무게중심이 자아에서 ‘자기’로 이동됨으로써, 투사의 인식과 철회가 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노력에 의해 무의식이 의식화 되고 의식과 무의식이 하나로 합성됨으로써 인간은 고유한 자기 자신이 되며 자기 자신의 전체에 접근하게 된다. 하나인 전체에 다가가게 됨으로써 개인은 구원의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마음의 고통이 치유되고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되며 종교적 자세를 회복하고 삶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내향화(Introversion) 과정을 통해 인격의 창조적 변환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그 개인의 시선과 관심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진심으로, 이웃과 동포와 세상으로도 흐르게 되며, 이웃과 동포와 세상사람들은 중요한 존재가 되며 귀한 존재로 공감하게 된다. 자기실현 과정은 인간 공동체의 의식성을 가져다 준다. 왜냐하면 ‘자기’는 모든 인간을 결합하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되는 무의식을 의식성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자기실현’은 자기 자신과 하나되는 동시에 인류와 하나되는 것이다.⁸⁾

방 법

1. 연구대상

2008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배고픔’과 ‘폭식충동’을 주소로 용인정신병원 외래를 방문하고 분석을 원하였던 피분석자 A, B, C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피분석자 A, B, C는 모두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로, ‘배고픔’, ‘폭식충동’ 및 이에 수반되는 다소간의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중에도 일상생활 및 직장에서의 업무를 비교적 잘 유지하고 수행하고 있었으며, 배고픔과 폭식충동 이외의 다른 정신질환이나 신체질환은 없었다. 피분석자 A와 B는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의 여성이며, 피분석자 C는 40대 초반의 남성이다. 본 연구는 용인정신병원 임상연구 윤리위원회(IRB)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았다.

2. 방법 및 평가도구

주 1~2회에서 2주 1회, 1회에 55분 동안, 의식과 현실의 상황, 어린시절을 포함한 개인사 및 가족력과 함께 무의식(꿈, 환상)을 지속적으로 살펴나가며 분석을 시행하였다. 피분석자 A, B, C 모두 약물치료는 시행하지 않았다. 본 연구와 논문은 분석과정 및 그 과정을 상세히 서술한 기록을 토대로 하였다. 분석 기간의 무의식 자료들 중 A의 꿈 8편, B의 꿈 12편, C의 환상(Vision) 2편을 발췌하여 본 논문에 소개하고 ‘상’과 ‘상징’의 작용과 의미를 치유의 경과와 함께 살펴보았다. 평

가자인 저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고 국제분석심리학회(IAAP) 정회원이며 국제(IAAP) 공인 융학과 분석가이다. 한국분석심리학회 학술이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한국융연구원 상임교수이다. 융학과 분석가 수련위원으로 교육분석가이며 지도분석가이다.

결 과

1. A의 분석 : ‘배고픔’의 분석 및 치유 과정에 대한 고찰

A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35세 미혼 여성으로, 연인 관계에 있던 남성과 갈등을 겪고 있던 중, 음식의 섭취량이 부족할 때나 끼니 때가 다가올 때 느끼는 자연스러운 본능으로서의 배고픔과는 다르며, 의식의 자아를 습격하듯이 위협적으로 찾아들기도 하며, 허전함과 그리움을 수반하는, 자신의 배고픔이 아닌 것 같이 낯설고 이질적인 것으로 체험되는 ‘이상한 배고픔’과 ‘강박적 폭식충동’으로 고통받던 상태에서 분석을 결심하게 되었다. 분석 기간 중 다음의 꿈들을 보고 하였다.

꿈A1) 변기의 표면까지 대변이 가득 차올라 와 있는 재래식 공중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고 있는데, 황색과 붉은색으로 얼룩얼룩한 무늬의 굵은 몸통을 가진 뱀이 변기 저 밑으로부터 대변을 뚫고 솟아올라와 날 응시하고 있다. 가슴이 철렁하고 몸이 얼어붙을 것 같이 놀라 열린 화장실에서 뛰쳐나온다. 단발머리를 한 예쁘장한 소녀와 함께 나란히 달리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상체와 머리를 세운 자세로 우리를 뒤쫓던 뱀이 내 옆의 소녀를 잡아 감는데, 내가 뱀에게 잡힌 것인지 소녀가 뱀에게 잡힌 것인지 혼동스럽다.

꿈A2) 빵 조각을 뜯어먹으며 그의 집 앞을 서성거리고 있는 내 모습이 초라하고 부끄러워 서둘러 내 집으로 들어온다. 방 안이 어둡다. 무서운 것이 내게 달려들기 직전인 것 같은 왈칵 엄습해오는 공포를 느끼며 내 방을 빠져나가려고 문으로 간다.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바깥도 어느새 깜깜해져 있고 아무도 없고 황량하고 무섭다. 다시 방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온다. 어둠은 매우 짙고 탈출구가 없는 깊은 절망감. 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 무서운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문을 닫으면서 내 왼쪽 옆으로 뭔가 보인다. 절망과 두려움과 어둠 속에서 막다른 순간에, 물기를 한껏 머금은 싱싱한 초록색 잎을 가진 나무가 거기 내 방 안에 있다. 왼쪽 뒤 어디선가로부터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나뭇잎들이 살며시 흔들리며 반짝인다. 어떤 위로, 희망, 경이로움을 느끼며 초록색 잎사귀를 향해 손을 뻗는다./ 나는 선생님과 함께 있다. 선생님과 나 사이에 열서너 살 된 소녀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처럼 안락의자에 누워 쉬고 있다. 소녀는 내게 서운해하며 “잘 다려진 뽕뽕하고 단정한 옷을 입혀주어 그 옷이 구겨질까봐 옷 안에서 몸을 꼼짝 못하고 힘든 상태로 있었다. 먹을 수도 안 먹을 수도 없는

꿈쩍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한다. 소녀가 진심으로 가엾게 느껴진다. 나도 선생님도 이 소녀의 보호자이며 주치의이다.

꿈A3) 시험 당일. 나는 수험생이며, 시험관은, 결혼을 하고 가정과 아이가 있으며 직장도 다니는, 삶의 체험을 겪으며 지혜롭고 당당해진, 보통 여성, 소박한 아줌마이다. 시험 문제는 네모난 개인 상 위에 놓인 둥근 접시에 담긴 붉은 피 스며있는 신선한 붉은 살코기를 먹는 것이다.

꿈A4) 어떤 존재가 내게 누런색의 둥글고 납적한 빵(떡) 세 개가 담긴 접시를 건네준다. 떡 위에는 둥근 공(球) 같은 물체가 놓여있어 떡들이 다른데로 흩어져 달아나지 않게 눌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목소리가 있다. “이 음식을 먹어 소화시키지 않고 음식이 몸 속이 아닌 몸 밖에 있는 상태에선 음식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무시무시할 정도의 흡착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날아 사람의 몸 표면에 들러붙는 성질이 있다.” 어느새 떡 하나가 들썩들썩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획- 하고 날아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다. 사라진 둥근 떡이 내 오른쪽 발 뒤꿈치에 달라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잡아 떼니 연한 살빛의 작은 새끼 거북이로 변한다.

꿈A5) 내가 잠든 사이에 사과 장수 남자가 사과를 팔러 사과 박스를 가지고 마치 도둑처럼 내 방 창문을 넘어 들어와 다녀갔다고 한다. 꿈A6) 나를 보고 있다. 나의 입주위가 클로즈업 된다. 치아들이 와르르 다 빠져버리더니 하얗고 올망졸망한 새 이빨들이 새싹이 돌아오르듯 돌아올라, 나는 이를 전부 새로 갈게 된다. 꿈A7) 한 손에 붉은 사과를 들고 입으로 가져가 한 입 베어 먹고 있다. 꿈A8) 선생님께서 그림카드를 선물 받았다. 그 안에 그려져 있는 매우 풍만한 엉덩이를 가진 젊은 여인이, 실제 여인으로 살아나, 귀엽고 생기있는 모습으로, 풍성하고 원초적인 여성의 몸으로 나에게 찡긋 미소 짓는다.

꿈A1-A8은 3년의 분석 기간 중의 꿈들 중 시간 순으로 8개의 꿈을 발췌한 것이다. 꿈A1-A2는 분석 초기의 꿈이고, 꿈A3-A5는 분석 시작 후 1~2년 사이의 꿈이며, 꿈A6-A8은 분석 시작 2년 이후부터 종결 시점까지의 꿈이다.

‘치료 초기의 꿈’은 무의식의 전체 계획을 의사에게 밝히는 경우가 흔히 있다. 꿈의 전체계획에 대한 통찰은 진단을 내리고 예후를 미리 살펴보는 데 큰 가치가 있다. 꿈을 보기로 한 후 가져온 ‘첫 꿈(Initial dream)’은 흔히 피분석자의 심리적 문제, 진단, 예후 등을 드러내곤 한다.

A는 총명하고 예쁜 딸로 어린시절부터 부모와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고 기대에 부응하며 열심히 공부하여 지성이 발달하고 예의 바르고 모범적인 전문직 여성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남성을 만나 사귀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기를 낳아 키우고 가정을 이루는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삶이 내키지 않고, 부럽기도 하나 엄두가 나지 않았다. 35세가 되어 한 남성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으나 관계에서 갈등이 커지

면서 허기와 폭식충동으로 고통받게 되었다.

첫 꿈(꿈A1)에서 A가 공중화장실에서 볼 일(대변)을 보고 있던 중에 ‘뽀’가 출현한다. ‘배변’은 음식을 먹고 소화하여(대변의 형태로) 낳는 행위이다. 꿈에서의 ‘배변’과 관련된 어려움은 실현해야 할 창조적 과제가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내곤 한다. A에게 실현해야 할 창조적 과제가 있으며 ‘배고픔’과 ‘폭식충동’이 이와 관련있음을 시사하는 꿈이기도 하다. 창조는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격의 창조적 변환이 될 수도 있으며 자신의 외부로 창작물을 생산하는 예술적 창조나 연구발표(academic creation) 등이 될 수도 있다.

초기의 꿈은 ‘자신에게 입혀진 뽀뽀하게 잘 다려진 단정한 옷 속에 갇혀, 옷이 구겨질까봐, 꿈쩍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라지도 못한 어린 소녀’의 상태(꿈A2)로 있는 A의 심리적 상황을 알리고 있다. ‘뽀’의 상(Imago)이 출현하여, A 자신 같기도 한 어린 소녀에게 다가오고 있다(꿈A1). 밖에는 자신을 도울 아무도 없음을 깨닫고 절망하며 자신의 어두운 방 안으로 들어서 처음으로 보게 된 ‘초록색 잎을 가진 나무’와의 조우로(꿈A2) A는 큰 위로와 희망을 느끼게 된다. ‘자신 안의 어린 소녀’를 보게 되며(꿈A1-2), A 자신과 치료자인 저자가 어린 소녀의 주치의가 된다(꿈A2). A가 느끼고 있는 배고픔은 한편으로는 A의 무의식 속의 어린 소녀가 느끼고 있는 배고픔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에 빠졌던 연인과의 갈등 속에서 투사를 인식하고 철회하며 분리되는 과정에서 오는 배고픔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외부대상으로 향하던 애착과 집착을 내려놓고 자기자신의 내면으로 관심의 방향이 전환되는 내향화(Introversion)로 접어드는 전기(轉機)에 일시적인 과식현상이 나타남을 왕왕 볼 수 있다. 외부대상으로 향하던 투사를 인식하고 미망에서 깨어나는 이 순간은 중요한 깨달음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기쁘기만한 것은 아니며, 충격과 실망이 따르기도 한다. 외부대상을 향한 투사를 포기하고 기존의 애착과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데서 오는 실망 때문이기도 하고, 어느 누구도 자신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사람이 없으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오직 자기자신뿐이라는 통찰에서 오는 외로움(꿈A2) 때문이기도 하다. 이 순간에 흔히 나타나곤 하는 배고픔과 과식현상은 긍정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외부대상으로 향하던 리비도를 다시 자신에게로 되돌리는데서 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껏 의식의 자아의 무관심으로 의식의 자아와 해리된 상태로 있었으므로 굶주린 채로 어둠 속에 있던 A 내면 무의식 속의 존재들의 배고픔과 갈망을 비로소 인식하고 공감하고 수용하는 데서 오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어둠과 절망의 막다른 상황에서 A가 간절히 구하던 도움의 손길은 밖이 아닌 안으로부터 오게 된다(꿈A2). A의 방안, 즉 A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모습을 드러내고 A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느끼게 해준 ‘초록잎을 가진 나무’ 상징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집단지 무의식’ 층에서 오는 ‘원형상(Archetypal Image)’일 경우 피분석자의 연상만으로는 상(Imago)의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 ‘나무’의 상에 관해 A의 개인연상을 포함하는 인류의 보편적 연상을 수집하여 확충(amplification)을 함으로써 상(像)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이해에 도달하게 되었다. ‘나무’는 ‘생명(삶)의 과정’이며, ‘의식성의 발달(깨달음, enlightenment)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성’과 ‘대극의 합일’의 상징이며, ‘자기실현’, ‘개성화 과정’을 상징한다. ‘나무’는 중세 연금술 문헌에 흔히 등장하는 상징이며, ‘비밀의 물질(arcane substance)’의 성장과 ‘현자의 금(philosophical gold)’으로의 변환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현자의 금으로의 물질적 변환’에 해당되는 것은, ‘자기자신에 대해 알게되는 것(Self-knowledge)’이며, ‘자기자신의 전체(homo totus)를 기억해냄’을 의미한다. 전체가 되는 것, 전체성은 치유의 효과를 발하게 된다. 연금술 서적인 베를리넨스의 필사본의 들어가는 말에 “피타고라스가 말하기를 ‘너희는 가장 귀중한 이 나무를 어떻게 심고 이 나무 열매를 먹은 사람이 다시는 배고프지 않다는 것을 후손들을 위해 적었고 또 적고 있다.’”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에 식수(植樹)에 관한 언급이 있고, 전설의 결말에 나무열매가 기적적인 재생의 작용을 한다는 내용이 있다. 누구든 그것을 먹는 사람은 배고픔을 모르고 살아갈, 기적의 식사, 생명의 약이 된다. ‘비지오Visio’에서는 그것이 치유를 해주는 불멸의 나무의 열매이다.^{9,10)} 자기자신에 대해 알게 되고 이를 실현하여 자기자신의 전체에 가까워지게 됨으로써, A의 배고픔과 폭식충동이 해소되고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꿈A4는 왜 투사가 일어나게 되는지, 투사의 인식과 철회가 어떻게 중요한지를 상징으로 드러내어 알리고 있다. 먹고 소화하여 자신의 몸이 되고 자신이 되어야 할, 본래 자기 자신에 속하는 심리적 요소들이나 삶의 내용물들을 먹고 소화시키지 못할 경우, 그것은 외부 대상에게로 투사되어 경험되며, 그러나 설령 투사가 있다 하더라도 투사임을 인식하고 철회한다면, 그것은 ‘어린 거북이’로 상징될 수 있는, 매우 귀하고 값진 체험이 될 것임을 꿈은 알리고 있다.

A의 꿈들에서 음식(둥근 떡, 붉은 사과, 붉은 피 스며있는 신선한 붉은 살코기 등)을 ‘먹고 소화시키고 배변해야 함’을 알리고 있는 주제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어 인상적이다. 배고픔과 폭식충동으로 고통받던 A의 상황으로 볼 때 이와 같은 꿈들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꿈의 이와 같은 상징들은, 배고픔과 폭식충동이 A가 극복하고 없애버려야 할 병적인 증상이기만 한 것은 아니며, 배고픔과 폭식충동이라는 증상 뒤에 숨겨져 있는 원인을 알리고 증상의 목적의미를 드러내고 치유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기도 함을 볼 수 있다.

꿈A5, A7에서 ‘사과’의 상징이 반복해서 출현하고 있다. A는 “꿈 속에서 그 사과는 내가 살아야 할 이정표같은 것이었다.”라고 연상하였다. ‘사과’는 사랑의 여신 비너스와 연관되어 있으며, 의식(consciousness)을 실어나르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를 보다 의식적이 되게 한다. ‘사과’는 구(球)형으로 ‘영혼(Soul)’과 ‘전체성’의 상징이기도 하다.¹¹⁻¹³⁾ 부모와 사회의 가치관에 순응하고 모범적으로 부응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이상적으로 바르게 살아 도달하게 된 현재의 인격과 입지를 존중하고 자긍심을 갖는 것, 보통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의 체험들에 허기져 있고 삶과 사랑에서 어리고 서툰 자신을 직시하는 것, 투사를 인식하고 보다 의식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무의식 속에 그림자로 소외되어 있다가 A에게 다가와 A의 인격과 삶 속으로 의식화되고 통합되기를 원하는, (결혼을 하고 가정과 아이가 있고 직장도 다니는, 삶의 체험을 겪으며 지혜롭고 당당해진) ‘보통사람’, ‘아줌마’(꿈A3)와 여성적 창조성과 생명력 충만한 자신 안의 ‘동물여인’(꿈A8)을 살리고 살고 의식화 하는 것, 자신의 내부의 무의식적 인격들 및 외부 세상 사람들과 의식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 맺는(eros)체험을 통해 자신의 전체성에 이르게 되는 것 등... 꿈의 상징을 먹고 소화하여 얻게 된 값진 열매인 ‘자기자신에 대한 앎(Self-knowledge)’이 분석과정과 삶에서 A가 의식화하고 살고 실현하게 될 이정표가 되었다.

A는 새롭게 이갈이를 한다(꿈A6). 원시종교에서는 소년들의 사춘기 성인식에서 이를 뽑는 의식들을 자주 보게된다. 이를 뽑는 의식은 ‘제의적인 죽음(ritual death)’의 경험이기도 하며, 성인으로 ‘재탄생’ 하기 전에 ‘이가 하나도 없는 영아(toothless infancy)’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것은 미래에는 먹는 음식이 달라질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즉, 미래에 먹게 될 음식은 더 이상 엄마가 제공하는 것에 의존하던 과거의 음식이 아닌, 신성하고 새로운 어떤 음식이 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¹⁴⁾ 신체적인 굶주림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충족되듯이 심혼의 굶주림은 ‘누미노제’를 지닌 ‘전체상(자기원형상)’을 비롯한 ‘상’을 관조하고 ‘상’의 의미를 먹고 소화함으로써 충족된다.^{15,16)} 꿈속의 상징들을 의식의 자아가 먹고 소화시키기 위해, 이해하여 의식화할 수 있기 위해, ‘이갈이’로 상징되는 ‘성인식(Initiation ritual)’의 통과의례가 필요하며, A에게 이것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해되지 못한 꿈은 다만 우연한 사건에 불과하지만, 이해(떡고 소화)됨으로써 꿈은 살아있는 체험이 된다. 의식과 무의식(꿈)을 함께 살피나가고 꿈의 상과 상징을 '주관단계'로 이해하는 분석 과정을 통해서, '무의식의 의식화'와 '인격의 창조적 변환'이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상한 배고픔'과 '폭식충동'의 호전과 치유가 진행되었다.

2. B의 분석 : '상(Imago)'을 통해 '배고픔'의 의미를 드러내고 치유를 시도하는 '자연의 빛(lumen naturae), 자기원형'의 작용

B 역시 '배고픔'과 '폭식충동'으로 고통을 받던 중 분석을 결심하게 되었다. B의 요청에 따라, B의 개인사 및 현실상황에 대해서는 본 논문에 소개하지 않고, 배고픔과 폭식충동의 양상과 분석 기간 중 꿈들에서 반복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뱀'의 상(Imago)과 변환에 국한하여 본 논문에 소개하고 고찰하고자 한다.

B는 타인들이 선망하고 존경하는 성실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 왔으며,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이와 같은 삶을 지속하는 것이 고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배고픔과 폭식충동으로 고통받게 되었다. 많은 음식을 먹어도 허기가 가시지 않았으며 때로는 B 자신의 배고픔으로 간주하기에는 그 배고픔이 이상하리만치 낯설고 거대하여, 누구의 배고픔인지 알 수 없는 낯설고 어두운 배고픔이 B의 몸을 통해 느껴지는 것처럼 체험되기도 하였다. B를 압도하고 사로잡는 낯설고 어두운 배고픔에 의해 습격당하고 강타당하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 이루게 된 삶이 무너지고 붕괴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혼자만 간직하고 감당해야 하는 버거움과 외로움을 겪게 되었다.

꿈B의 분석 과정에서 '뱀'이 상이 반복적으로 출현하고 '뱀'의 '상'의 변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무의식 편에서도 의식의 자아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으며, 무의식 편에서 먼저 의식의 자아에게로 다가오고 있었다. 무의식을 대하는 자아의 태도가 공감적이고 수용적으로 변화하게 됨으로써 '자기원형'이 주재하는 '개성화(자기실현)' 과정이 진행되었다. '자기'와의 조우는 '(자아를 초월하는)신적 존재'와의 조우와 체험적으로 구분되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체험임을 볼 수 있었으며, '자기원형'이 주재하는 '자기실현'의 과정은 '우리 안의 신(God-within-us)'이 주재하는 '창조'의 과정과 일맥상통함을 볼 수 있었다. 무의식의 상과 상징을 대면하고 무의식으로부터 다가오는 존재의 의도와 목소리에 귀기울이게 됨으로써, 처음에는 부대끼는 증상과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만 체험되어 외면하고 싶고 없애버리려고만 했던 '배고픔'과 '폭식충동'을 새로운 관점으로 조명하고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배고픔'의 원인과 의미가 '상'을 통해 B에게 드러나게 되었으며, 배고픔이 어떻게 치유되고 있으며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지를 '상'이 현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의식과 무의식(꿈, 환상)을 함께 살피나가고 꿈의 상과 상징을 주관단계로 이해하는 분석 과정을 통해서 '투사가 인식'되고, '무의식의 의식화', '인격의 창조적 변환', 그리고 '세상과의 창조적 관계변환'이 진행되었다. 의식과 무의식, 정신과 신체가 상호작용하며 함께 변환해가게 되면서 '이상한 배고픔'과 '폭식충동'의 호전과 치유가 진행되었다. B 자신의 '내부'인 무의식 심층에 의식의 자아를 초월하는 절대지(absolute knowledge, 자연의 빛)와 창조하고 치유하는 기능이 존재함을 볼 수 있었다.

6년의 분석 기간의 B의 꿈들 중 앞의 결과들을 도출한 근거가 되고 이정표가 된 12개의 꿈들을 발췌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꿈B1) 문 안 저 편에 무언가가 있다.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알기 어려운, 형상이 바뀌고 늘어나고 줄어들며 흐르기도 하는, 거대한 뱀 같고, 검고 붉으며 불꽃과 용암같은 열기에 싸여 있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두렵고 떨리는 느낌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문 저편 안쪽에 있다. 존재는 고통스러워하며, 신음같은 울음같은, 슬퍼하며 애원하는, 어떤 소리를 내면서, 나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간곡히 원하고 있다. 문 저편의 존재에 대한 끌림과 연민을 느낀다. 문을 열고 싶은 마음과 열기 두려운 마음과의 갈등 속에서, 귀 기울이며 문 앞에 가만히 서 있다.

꿈B2) 자연(숲)으로부터 두 마리의 커다란 뱀이 머리를 치켜들고 다가오고 있다. 두 마리 뱀은, 각각, 하나의 몸통을 가졌으나 목·머리·얼굴 부분은 세 갈래인, 몸통 하나에 머리는 세 개인 모습이다. 두 마리 뱀이 내 방으로 들어오고, 난 뱀과의 접촉으로 의식을 잃을듯한 충격을 느낀다.

꿈B3) 어떤 존재가 내 양 눈 사이 미간의 흉터를 절개하고 수술한다. 흰 비지같은 물질들이 미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이 내가 창백하고 생기없고 남자같은 모습이었던 이유인 듯 하다.

꿈B4) 저 편에서 이 편으로 영어단어들이 타전되어 내 앞의 공간에 찍히기 시작한다. "In Deity(Diety), All is(be) poured." 나는 뜻을 이해하고자 애쓴다. "신(神)에게 모든 것이 쏟아 부어져야 한다." 타전에 의하면 신(Deity)은 동시에 음식(Diety)이라는 의미이다.

꿈B5) 어린시절 살던 동네. 길을 건너려고 건널목에 서 있는데 그 때까지 내 몸이었던 옛 몸이 두터운 외투를 벗어 버리듯 벗겨져 나간다. 뱀이 허물을 벗듯이 나의 옛 몸이 벗겨져 나가고 작고 예쁜 어린 처녀의 몸으로 서 있는 나를 본다./ 내 몸의 상처가 있던 자리마다 새 눈(目)이 생겨난다. 새로워진 두 눈, 목에 눈 하나, 우측 발목에 눈 하나. 나는 네 개의 새 눈(目)을 가지게 되었다.

꿈B6) 나의 집 벽장과 화장실에 내가 모르고 있던 존재들이 있다. 이들 존재의 출현으로 아직은 무슨 일인지알수 없으나 곧 무슨 일이 생키려고 준비 중인데 집 안이 활기와 설렘으로 술렁인다./ 목 뒤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 돌아보니 벽장 속에서 나온 듯한 '커다란 검은 뱀'이 공중을 구불구불 물결치듯 움직이며 나를 향해 다가온다. 뱀은 입에 '황색 구(공)'을 물고 있는데 '뱀(떡)' 같은 음식'이기도하다. 뒤에서 다가오고 있는 뱀을 차마 못 돌아보고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돌려보니, 마치 연인같이 내 목에 머리를 대고 있는 뱀은, 어머니가 당신의 입으로 음식을 먼저 씹어 아가가 먹기 좋게 만들어 먹이는 것 같이, 입에 물고 있던 '황색 공'을 자신의 입으로 잘게 부수어 작은 조각으로 만들어 내 몸으로 뿌리고 있다. 그러자 나는 포만감을 느낀다. '언제부터 나의 집 벽장 속에 저렇게 큰 검은 뱀이 살고 있었을까?'

꿈B7) 보니 내 앞에 '기체(공기)같은 투명한 존재'가 나와 나의 왼팔을 공유하고 있어, 나의 왼팔은 조금 전에는 나의 왼팔이었지만 지금은 내 앞 존재의 오른팔인 상태로, 무게중심이 내 몸이 아닌 내 앞 존재의 몸으로 이동해 있는 상태이므로, 지금 내 왼팔을 존재가 존재의 의지로 자신의 오른팔로 쓰고 있으므로, 나의 왼팔은 내 무게가 아닌, 내가 들어올릴 수 없이 무겁고 고통스러운 존재의 무게이므로, 그래서 나는 내 왼팔을 한 치도 들어올릴 수 없었던 것이다! 나의 몸이 나의 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 편 내 앞 보이지 않는 '기체(氣體)같은 존재'의 드러난 몸이기도 하다는 충격적인 사실! 내 몸이 천근만근으로 무겁고 낯설고 내 몸 같지 않고 고통스러울 때 바로 그때! 저편 내 앞의 '존재'가 (나의 의지가 아닌) '존재'의 의지로 나의 몸을 쓰고 있을 때라는 사실에 나는 충격을 느낀다.

꿈B8)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나에게 편지를 건네준다. 거기에는 내 몸이 부대끼고 힘든 최근 상황에 대한 답이 쓰여있다. "Divine Influx가 네 몸 속으로 들어가 너와 관계를 맺으며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꿈B9) 둥근 원(구) 같은 형체 속에,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젓가슴 엉덩이 허벅지 부위가 풍만한 원초적이고 관능적이며 건강한 검은 몸의 한 젊은 여인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녀의 몸이 활기와 에너지로 가득차 진동하고 있다. 그녀의 몸에서 흰 빛과 강한 에너지 파장이 물결치듯 솟아나와 사방팔방으로 방사되어 퍼져나오고 있다./ 남루한 웃을 입고 길게 자란 머리와 수염을 한 '거지' 행색의 한 남자가, 거지 행색이나 건강한 체격으로 왕과도 같은 당당한 위엄이 풍겨져 나오는 한 남자가, 오랜 세월동안 방랑하고 몹시 굶주리고 배가 고했던 듯, 지금 누군가에 의해 정성껏 차려진 밥상을 받고, 둥근 흰 떡(뽕)을 잘라 잘게 부스러뜨려 정신없이 맛있게 먹고 있다. 나는 충격을 느낀다. 그의 얼굴에는 긴 세월동안의 고뇌와 고통의 흔적이 섬세하고 깊이 스며들어 있다.

꿈B10) 내 앞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어 존재의 손이 칼을 들고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사과를 꺾어 작은 조각으로 썰어 둥근 쟁

반에 담아 내게 건네준다.

꿈B11) 그들을(그를) 진심으로 대하는 나를 본다. 저 편으로부터, 사절단의 대표인듯한 그가 내게로 온다. 저편 나라를 공식적으로 대표하여 저편 나라와 이 세상의 나와 국가 친선우방조약 같은 매우 중요한 약조를 맺기 위해 그가 이곳으로 나에게로 왔다. 그는 나를 극진히 예우하고 진심으로 존중하며 그의 나라에서 가져온 선물인 오렌지(Orange)같은 '구(球)'형의 밝은 노란빛 과일을 그의 칼로 썰어 내가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후 둥근 접시에 담아 온다. 마음이 기쁘고 좋다.

꿈B12) 길을 가는데 검은 뱀 한 마리가 길목에 있다. 못본채 하고 그냥 가려는데 뱀은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온다. 길목의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뱀은 나를 바라본다. 뱀이 나를 아는 것 같고, 나도 뱀이 낯설지 않다. 뱀과의 만남이 다소간 부대끼지만 외면하고 가 버리려니 마음이 안좋아 나는 용기내어 뱀에게 다가가 가볍게 목레한다. 그러자 뱀은 엄마 품으로 와락 달려드는 아가처럼 내 품으로 달려들더니 내 무릎 위에 안긴다. 막상 안고 보니 차갑고 징그러울 것 같은 예상과는 달리 뱀은 솜털같고 깃털같은 느낌으로 포송포송하고 포근하고 흰빛 도는 구형으로 매우 가볍다. 엄마 품에 안긴 아가처럼 행복해하는 뱀을 가만히 안으며 나는 가슴 뭉클한 벅찬 기쁨과 큰 위로를 느낀다.

A의 꿈(꿈A4, 5, 7)와 B의 꿈(꿈B6, 9, 10, 11)에서 붉은 사과, 노란빛 오렌지 같은 과일, 황색 공 모양의 떡, 구 안의 여인, 둥근 흰 떡 등 '구(球)'의 상징이 배고픔을 치유하는 음식의 형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 '구(球)'에 대한 확충 결과 다음과 같은 이해에 이르게 되었다. '구'는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하나의 '전체성'이다. 헛된 투쟁으로 무기력하게 되었던 삶이 '구'를 통해 다시금 가능하게 된다. '구'는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된 '전체(totality)'인 '자기(Self)'의 상징이다. '영혼(Soul)'과 '세계혼(World Soul)'은 '구'의 형태일 것이다. 그는 태초의, 그리고 최후의 시간의 둥근, 완전한 인간, 인류의 시작이요, 목표다. 성(性)의 분리 너머에 있는, 혹은, 오직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이 합성되어 합일됨으로써 도달될 수 있는 인간의 '전체성'이다. '자기'의 자발적인 발현, 즉 '자기'의 상징의 출현은 무의식의 무시간성과 같은 것을 필연적으로 동반하며, 영원성, 또는 불멸성의 감정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자주 보게 된다. '자기'의 체험들은 강한 인각(印刻)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집단적 무의식의 현상 안에 속하는 것이다. '자기'가 작업에 나타나고자 한다. 그러므로 작업은 '개성화(individuation)', 또는 '자기 실현(Self-realization)'의 과정이다. 무시간성 속에 존재하는 '전체'로서의 '자기'는 완전히 둥근(spherical), 양성적인(hermaphroditic), 원초적 존재(Original being)로, 의식과 무의식의 상호간의 통합, 의식과 무의식의 합성(synthesis)

을 나타낸다.¹⁷⁾

의식과 무의식(꿈, 환상)을 함께 살펴나가고 꿈의 상과 상정을 주관단계로 이해하는 분석 과정을 통해서, ‘무의식의 의식화’와 ‘인격의 창조적 변환’이 진행되었으며, ‘이상한 배고픔’과 ‘폭식충동’의 호전과 치유가 진행되었다.

3. C의 분석 : ‘전이’ 현상과 ‘배고픔’에서 발현된 ‘뱀’의 환상(Vision)과 ‘상’의 작용

예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던 40대 초반 남성 C는 실연의 아픔을 겪게 되고 예술 창작에서도 정체기를 맞게 되었으며, 이 즈음하여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낯설고 이상한 배고픔과 자아를 압도하는 폭식충동으로 고통받던 중 분석을 결심하게 되었다. 분석을 시작하면서 배고픔과 폭식충동이 일시적으로 호전되고 전이현상이 시작되었으며, 전이현상이 진행됨에 따라 또다시 허전함과 그리움을 수반하는 낯설고 이상한 배고픔과 폭식충동으로 고통받게(suffering) 되었다. 분석 초기의 힘들던 날들에 C는 두 차례에 걸쳐 매우 놀랍고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

C의 기록 1. “나는 약간의 나인 부분과 그보다 더 많은 부분의 내가 아닌 다른 힘에 이끌려 또다시 먹기 시작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아닌 이 낯설고 강한 기운에 저항하겠다는 의지는 작은 파편 정도로 줄어들고, 나를 집어삼킬 것 같고 배가 찢어질 것 같이 불러와도 채워지지 않는, 나의 허기가 아닌 그 이상한 허기에 굴복해, 내 몸 속 깊은 곳 알 수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 밀려오는 바닥없는 심연같은 그 허기에 저항하지 못하고 굴복해, 혐오스럽게 먹어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다가 문득, 절박하고 간절하게, 내가 왜 이렇게 해매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 나는 운다. 내가 왜 이러는지 알고싶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C 앞에, C의 몸 바깥이 아닌 눈 안쪽 몸 안쪽의 공간에서 어떤 이미지가 어떤 소리와 함께 갑자기 나타난다.

Vision C1) 검붉은 색의 몸통을 가진 ‘커다란 뱀’이 고개를 세워 머리를 들고 나를 응시하고 있다. 목청 부분을 힘껏 부풀리고 아가리를 한껏 벌린채 고음의 금속성의 날카로움과 깊은 동굴 같은 울림으로 나를 향해 절규하듯 포효한다. 뱀은, 아직은 내가 알지 못하는 자신의 존재를, 어떤 댕가를 치르더라도 내게 전달하겠다는 듯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고야 말겠다는 듯이, 나를 응시하고 있다. 이상한 것은…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해 서운한 뱀의 상처와 분노가 느껴져 온다. 내게로 향한 뱀의 갈망과 그리움이 느껴져온다. 뱀과의 만남이 나를 혼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뱀을 만나게 된 것이 참으로 반갑고 기뻐 눈물이 흐른다.

“뱀과의 대면 후 매우 이상하고 신기하게도 나의 마음은 평정을 되찾고 고요해 졌으며, 무섭게 밀려들던 허기도 어느새 찾아들어 나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먹는 것을 멈추게 되었다.”

C의 기록 2. “허전하고 슬프다. 뱀 속 어둡고 깊은 어딘가에 살고 있는 그 배고픈 괴물이 바닥없는 심연같은 아가리를 벌리며 깨어나고 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외롭고 불안하고 절망적인 이 상황을 어찌 헤쳐나가야 하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르고 동떨어져있는, 그런 이상하고 두려운 시간과 장소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은 이 느낌. 선생님의 부재로 인해 이와 같은 고통 속에 놓여있는 나는 대체 누구인가? 선생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저를 지켜주소서. 저를 지켜 주소서.”

바로 그 순간 C 앞에, 몸 바깥이 아닌 눈 안쪽 몸 안쪽의 공간에서 어떤 이미지가 나타난다.

Vision C2) 뱀의 흰 머리가 빛 한 점 없는 검은 어둠 속에서 까닥거리고 있다. 뱀은 자신의 머리로, 천정을 덮고 있는 뚜껑을 들어올려 열어젖히려 애쓰고 있다. 얼룩 한 점 없이 희고 뽕뽕송송한 굵은 몸통을 휘휘 무수한 또아리 틀고 틀어 올라앉은 뱀의 자세가 나를 혼돈다. 뱀의 머리·얼굴·목·상체는, 이제 막 처녀·총각의 자세가 느껴지려 하는 소년·소녀같은 모습으로, 눈매가 예쁘다. 뱀은 아주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빛 한 점 들지않는 철쭉같이 검은 이곳, 대지의 뱃속 지하 땅 속 깊은 곳, 사방이 검은 돌덩이로 둘러싸인, 유일한 출구인 저 위 천정 부위가 무거운 돌뚜껑으로 봉해져 있는, 석굴(석관) 혹은 ‘돌 항아리’ 속 같은 이곳에서 거하고 있었던 듯 하며, 이제 뱀의 몸이 무수한 또아리를 틀면서 자라 올라와 몸뚱이가 검은 항아리 전체를 가득 채우고, 온 몸은 흰눈처럼 새하얗게 변하고, 머리·얼굴·상체 부분은 처녀·총각(소년·소녀)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하여, 그·그녀의 흰 머리가 천정의 돌뚜껑에 닿자, 설레이는 표정으로, 머리로, 닫혀있는 돌뚜껑을 반복해서 들어올리고 있다. 드디어 조금씩 돌뚜껑이 들어올러지기 시작하고, 열린 틈새로 눈부시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노란빛이 검은 항아리 속 검은 석굴 안으로 비쳐들기 시작한다. 구원과는 같은 밝고 기쁜 노란빛이, 가슴 벅찬 기쁨으로 두 뱀에 흥조를 띠고 있는 ‘흰 뱀’의 얼굴과 몸을 비춘다.

“다음 순간! 마치 폭풍의 눈 속에 놓여진 듯, 마법과도 같이, 기적과도 같이, 구원과는 같이, 순식간에 폭식충동이 찾아들어 사라지고 마음의 평온과 고요와 기쁨이 찾아 들었다.”

C가 겪고 있던(suffering) 정서적 고통과 폭식충동이 ‘뱀’의 ‘상(Vision)’으로 변환되었으며, 충동이 ‘상’으로 변환됨과 동시에 폭식충동의 위세가 찾아들어 사라지고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게 되었다. 증상으로만 느끼며 절망적으로 괴롭기만 하던 고통(허전함, 그리움, 배고픔, 폭식충동)에 대

해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으며, 고통 속에 어떤 값진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되고 기쁨과 희망을 품게 되었다. 의식과 무의식(꿈)을 함께 살피나가고 꿈의 상과 상징을 ‘주관단계’로 이해하는, 이어지는 분석 과정을 통해서, 투사(전이)를 인식하고, 외부대상(분석가)과의 분리(separation, detachment)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무의식적이었던 심리적 내용이 인식됨으로써 ‘의식과 무의식의 합성’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되었다. ‘인격의 창조적 변형’과 ‘예술적 창조’가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상한 배고픔’과 ‘폭식충동’이 호전되고 허전함과 그리움이 치유되었다. ‘전이’ 현상은 자기자신이 되고 자신의 전체가 되고자 하는 ‘자기실현’의 충동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고 찰

1. 충동, 상(Imago), 상징(Symbol)¹⁸⁾

꿈과 환상에서 발견되는 ‘상’과 ‘상징’은, 영적(spiritual)인 정신의 영역에서 탄생하는 인간에게 내재한 고도의 의식성이며 지성인 동시에 인간 존재의 본성적 뿌리로부터 생겨나는 것이기도 하므로, 매우 분화된 정신기능의 산물일 뿐 아니라 가장 원초적이며 근원적인 본성의 산물이기도 하다. ‘상’과 ‘상징’에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과 동시에 개인의 의식적 인격과 삶 속에서 스스로를 실현하고자 하는 ‘창조의 충동력’과 ‘에너지’가 내재되어 있다. ‘상’과 ‘상징’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붕괴되어 있는 다리를 대체해준다. 무의식으로부터 오는 상징이 치유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의식에 의해서 이해(assimilation)되어야 한다. 즉, 의식의 자아가 꿈의 상징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¹⁹⁾ 무의식이란, 의식의 자아가 모르고 있거나 의식의 자아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본래의 자기자신이며 미래에 자기자신이 되어야 할 미지의 정신의 영역을 의미한다. 의식의 자아가 자신과 삶에서, 거슬리고 낯설고 부대끼는 측면들과 대상들과 상황들에 대해 무관심하고 회피하고 억압하는 등 자아중심의 일방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할수록, 무의식은 자아에게 강력한 구속력을 행사하며 ‘충동(정서적 고통과 본능적 충동)’으로 체험되는 경향이 있으며, 의식의 자아를 사로잡아 충동 그 자체를 행동화(acting out)하려는 방향성을 취하게 됨으로써, 자아에게 부정적이며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 반면, 자아가 자신과 삶 속에서 조우하는 이와 같은 측면이나 대상들과 상황들에 대해, 자아중심의 아집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대면하고 견디고 경청하고 대화함으로써, ‘충동’은 ‘상’과 ‘상징’으로 변환되며, ‘상’과 ‘상징’을 성찰하고 집중하는 자아의 진지한 태도와 노력만큼, ‘상’과 ‘상징’의 의미가 자아에게 드러나고 이해됨으로써, 개인의 인

격과 삶에 창조적이며 치유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 충동의 의미가 ‘상’과 ‘상징’으로 드러나게 됨으로써 그 개인은 생물학적 충동(본능)의 압력(tension) 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다. 상징의 결어는 충동(본능) 영역에 부담을 주게 되며, 상징을 소유하는 자들에게는 이행이 쉽다.²⁰⁾ ‘배고픔’을 포함한 강한 충동이 구체적으로 이용되기를 요구하고 흔히 강요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예외 없이 생물학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구체적 경과는 인격의 측면에 의해 강하게 수정되기 때문이다. 기질적으로 영적(spiritual) 태도를 취하는 사람에게는 구체적인 충동 활동조차도 일종의 상징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그것은 더 이상 충동성의 순수한 충족이 아니고 여러 ‘의미’와 결부되어 복잡해진다. 구체적 실현을 요구하지 않는, 단지 증후적인 충동 과정일 때는 그 충동의 상징성이 두드러진다.²¹⁾

2. ‘뱀’의 상징에 대한 이해²²⁻²⁷⁾

A, B, C 세 분 피분석자 모두의 꿈과 환상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뱀’의 상징에 대해 확충함으로써 그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보통 뱀 꿈은 의식이 본능적 토대로부터 이탈할 때 꾸게 된다. 뱀이 출현할 때 그것은 접근하기 어려우며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중요한 어떤 것으로 냉혹하고 무정하며 우리가 그것과 타협할 수 없는 우리 자신 내면에 존재하는 본능적인 심리 상태의 한 조각을 상징한다. 무엇인가 의미심장한 것이 무의식으로부터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의지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으며 또한 그것은 우리의 의지의 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왜 무의식이 뱀이라는 무섭고 징그러운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융(Jung CG)은 그 이유가 의식의 기독교도적인 태도와 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무의식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습은 우리가 무의식을 바라보는 그 얼굴을 똑같이 비추고 있다고 하였다. ‘자기(Self)’와 처음 만남에서는 ‘자기’의 모든 부정적인 측면들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것은 무의식과의 예기치 않은 조우에서 거의 항상 나타나는 특징이다. 자기(Self)가 증상들을 만들었으며(create), 그리고 이 증상들을 치유한다. 융은 ‘짜라투스트라 쎄미나’에서 뱀은 니체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인간의 정신의 어떤 부분으로, 니체는 뱀으로 상징되는 ‘추한 인간’을 경멸하고 거부하였으며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이것이 니체의 큰 문제이며 병이었다고 강연하였다. 뱀은 의식의 자아가 자신의 것이라고 절대로 믿지않는 소외되고 방치된 인격의 영역이며 그림자로, 전적으로 무의식적이며 의식화할 수 없는 어떤 것에 해당되며, 그러나 거기에 매우 값진 어떤 것이 내포되어 있다. 집단적 무의식으로써 그리고 본능으로

써 뱀은 고유한 얹(지혜)을 소유하고 있으며 뱀이 소유하고 있는 그 얹(지혜)은 흔히 초자연적인 것으로 느껴진다. 이것이 뱀이 지키고 있는 보물이며, 뱀이 한편으로는 악과 어둠을 의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혜를 의미하는지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뱀은 정신적인 추상성(spiritual abstractness)과 동물적인 구체성(animal concreteness) 둘 다의 경향들을 상징하고 있으며, 인간 안에 내재하고 있는 인간이 아니며(non-human) 인간 범위 밖에 있는(extra-human) 그러한 속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뱀의 비인간적인 측면은, 우리 인간적인 속성만으로는 완전히 길을 잃고 있던 어떤 장소에서 긍정적인 방식으로 창조적인 해결책을 가져다 주는 신적(神的)인 지혜와 손잡고 있다. 뱀은 단지 사악하고 대지적인 존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혜와 빛과 선(善)과 치유의 상징이기도 하다. 뱀의 상징의 내적인 양극성(대극성)은 인간의 양극성을 훨씬 넘어서며, 뱀은 ‘육체(body)’와 ‘영혼(soul)’과 ‘정신(spirit)’을 가지고 있는 ‘자기(Self)’의 상징이기도하다. 뱀은 인간의 자아(ego)가 아니며, 집단적인 속성의 ‘집단 영혼(Collective Soul)’이다. 뱀은 해독시키는 치유의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만물이 성숙해지고 완성된 존재에 이르도록 이끄는 원리이다. 뱀은 의신(醫神)의 원형이며 의신(醫神) 에스클레피오스의 상징이기도 하다. 의신 에스클레피오스는 뱀을 동반하고 있으며 의신 에스클레피오스가 뱀의 모습을 취하기도 한다. 뱀으로 감겨져 있는 지팡이인 Caduceus는 의사의 상징물이었으며, 그것은 동시에 주술사 Hermes의 상징물이기도 하다. 뱀이 감겨져 있는 지팡이는 치유의 관념을 상징한다. 뱀은 사만(呪醫)과도 밀접한 동물이다. 사만의 집에 뱀이 살고 있다는 민담들이 도처에서 발견된다. 마치 그리스도가 치유시키는 존재인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자(Savior)와 뱀은 서로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메르퀴리우스와 Caduceus의 전설이 보여주듯이 반복하며 으르렁거리는 대극들 사이에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제 3의 것이 필요하였다. 심리학적인 대극에서도 그러한데, 대극은 ‘제3의 존재’의 출현 없이는 합일될 수 없는데, 그것은 의식편에서의 노력과 무의식편에서의 협조와 지지가 요구되며, 그리고 출현하는 제 3의 것은 창조적이면서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어떤 해답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인데, 이 제 3의 것이 왕왕 꿈에서 ‘뱀’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뱀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잘 알려진 비유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정신적·영적인 동물로 지혜와 최고의 정신성(supreme spirituality)을 내포하고 있다. 뱀은 물고기에 상응한다. 구원자는 동등하게 물고기로서 그리고 뱀으로서 상징된다. 물고기와 뱀은 무의식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마치 화살과도 같이) 의식을 향해 쏘아지는 정신의 사건들 혹은 경험들을 묘사하는 상징들로, 큰 충격을 주고 깜짝 놀라게 하고 기겁을 하게 만

들며, 구원의 효과를 가진다. 물고기와 뱀의 상징은 둘 다 ‘그리스도상(像)의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해석’으로 다가올 때 될 때 헤아릴 수 없이 큰 가치를 지니게 된다. 한 사람이 독립적이고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 혹은 ‘전체’가 되어가는 ‘개성화’ 과정은, 뱀이 인도하는 길이며, 구불구불한 우회로들과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실수들과 시행착오들로 이루어진 여정을 포함하고 있다. 뱀의 인도는 너무나 천상적인 기독교적인 영성(靈性)을 보살피며, 뱀은, 우리 안에서 살기를 역시 원하고 있는, 자연(본성)의 동물적인 측면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동물적인 측면이기만 한 것은 아니며, 자신이 살아내야 하는 삶을 피해가는 어느 누구도 결코 전체가 될 수 없는 그런 측면을 담고 있다. 뱀은 ‘하늘에 있는’ Son of God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상에 있는’ Son of God로서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신의 육화(자기실현)’일 때 뱀이 출현하게 된다. 뱀은 ‘알고 있는 존재’이며, 자아는 그렇지 않다. 의식만으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노력해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전혀 아무런 시도도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무의식에서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식 편에서의 고된 노력이 있어야만 뱀의 해답이 배열(constellation)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저 아래로부터의 계시이며, 성서(聖書)로부터의 계시가 아닌, ‘자연의 책’으로부터의 계시이며 얹이며 빛이다. 파라셀수스는 ‘자연의 빛(lumen naturae)’, 즉 자연 안에서 발견되는, 자연으로부터 오는 이해와 얹에 대하여 말하였다. ‘자연의 빛’은 자연의 혼령인데, 의식의 잘못된 집행이나 일방성을 일부는 기능적으로 보살피고 다른 일부는 강제로 수정하는 자율적인 정신체계이다. 인간의 동물심혼과 물질과 육체를 둘러싸고 있는 아래쪽의 자연으로부터의 계시가 중요하며, 아래로부터의 계시는 우리를 악(惡)의 문제, 즉 신(神)의 어두운 측면과 직면하게 한다. 융이 ‘집단적 무의식의 절대지(Absolute Knowledge)’라고 부른 이 ‘자연의 빛’은, 많은 민담에서 뱀이 지키고 있는 보물로, 혹은 뱀이 쓰고 있는 왕관으로 표현되어진다.

융은 “환자들이 호소하는 이상한 증상들이 때로는 쿤달리니(Kundalini) 뱀이 깨어남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으며, 그러한 증상들이 질병의 무의미한 부산물이 아닌 의미 있는 상징적 과정임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토로하였다. 요가에서 잠들어있는 쿤달리니를 깨어나게 하는 것은, 세상(물질)으로부터 신(神)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면, 세상 속의 대상에 ‘자신 안의 신(자기)’을 투사하고 있었음을 ‘인식’하고 투사를 ‘철회’함으로써, 그 대상으로부터 ‘분리(separation, detachment)’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자신의 내부에 신(자

기)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고통(suffering)을 통해서 자아는 ‘자신 안의 신(자기)’을 의식한다. 고통을 겪으며 슬퍼하는 것은 융합(Coniunctio), 즉 무의식과 의식의 합성(synthesis)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²⁸⁾

3. ‘창조적 충동’으로서의 배고픔과 폭식충동

피분석자 A, B, C에서 ‘배고픔’과 ‘폭식충동’은 자신의 본성과 개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전체가 되는 ‘자기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무의식의 의식화·인격의 창조적 변환·세상과의 창조적 관계변환’으로 귀결되는, ‘창조적 충동’이라고 볼 수 있다. ‘창조(재탄생)’라는 목적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의식의 자아가 그 의미를 깨닫기 전에는 정서적 고통과 본능적 충동으로 체험되기도 하는 ‘창조적 충동’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 ‘상’과 ‘상징’으로 드러나게 됨으로써, 의식의 자아에게 그 의미가 알려지게 된다.

무의식으로부터 출현한 ‘상’과 ‘상징’이 어떻게 구체적인 인격과 현실의 삶으로 실현될 수 있게 된 것일까? 무의식과 의식이, 정신과 신체가 어떻게 상호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일까? 간절한 소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

융은 1935년 짜라투스트라 세미나에서 “정신은 Subtle body(미묘체)라고 불리우는 어떤 것을 통해서 구체적인 현실로 실제로 실현되는 효과를 가지게 될 수 있다.”라고 강연하였으며,²⁹⁾ Meier는 “Subtle body의 이론으로 우리는 정신-신체 관계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상징을 발견했다.”라고 저술하였다.³⁰⁾ 또한 이부영은 “비인과적 원리로서의 동시성 현상은 Jung, C.G.의 만년의 사상으로 정신-물질간의 접점을 제시하는 획기적인 발견이다… Subtle body를 전체성의 원형, 혹은 상징으로 본다면, 전체성, 즉, ‘자기’에 의한 치유, 자기원형이 살아나도록 의식의 조건을 마련한다는 것-결국 의식화작업을 통하여-은 융에 의해 제시된 치유의 큰 길이니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치유는 치료자의 열정, 그리고 양자의 의식을 넘는 원형적 배열을 통해서 일어난다… Robert Stein이 그의 논문에서³¹⁾ 정신과 신체를 초월하는 제3의 신비한 힘과 연결되려면 상징적 태도, 종교적 태도가 가장 핵심이라고 한 것, 내 영혼 안의 신(神)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어떻게 나는 나의 질환의 신비 뒤에 있는 의도를 발견해서 치유될 것인가 하는 물음, 치유는 일차적으로 우리의 질환에 책임이 있는 신(神)을 만나는 일이라는 것, 현대의학이 영혼을 잃어버리고 증상의 제거만을 시도한다는 주장이 훨씬 더 인간적인 듯 들린다. 또한 정신과 물질 관계에 관한 해결, 또는 응답을 의식적 추론 이전에 먼저 무의식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Theodor Abt의 접근³²⁾이 훨씬 더 참신하고 바른 태도로 보인다. 정신과 신체 관계에 대한 분석심

리학적 연구는 von Franz, M.L.의 수 상징에 관한 연구로서 그 핵심적인 길이 열렸다… 신경과학적 연구를 인과적 관점이 아닌 동시성이론의 관점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³³⁾라고 저술하였다. 융은 ‘우리 안의 신(神)’, 즉 ‘자기’를 정신기능에 불과한 것으로 보지 않았으며 그런 생각은 말년에 이룰수록 더 깊어졌다. 그는 ‘원형’을 단지 심리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았고, 물리적 현상으로도 나타나는 ‘정신양(psychoid)’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³⁴⁾ 원형이 가진 정신양적 측면은 정신적인 형태로는 물론 에너지를 가진 물리적 현상으로도 드러난다.³⁵⁾ 신(神)이 상상한 것은 현실에서 일어난다. 신에 의하여 상상되기 때문에 곧바로 실체성을 갖게 되고 무의식의 내용처럼 잠재 현실의 상태에 있지 않다.³⁶⁾ 폰 프란츠(von Franz M.L.)는 같은 주제와 관련하여 저서 ‘C.G.융, 우리 시대 그의 신화’에서 다음과 같이 저술하였다. “‘동시성 사건’들에서 가장 본질적이며,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 사건들 속에서 심혼(Seele)과 물질의 이원성이 지양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들 속에 동시성 고유의 누미노제가 나타난다. ‘동시성 사건’들은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통일체를 경험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을 융은 중세의 자연철학에 의거해 ‘우누스 문두스(Unus Mundus, 하나의 세계)’라 명명하였다. 중세철학에서 이 개념은 잠재적으로 신의 영(Geist) 속에 미리 존재하고 있는 창조의 설계도를 말한다. 이 설계도에 따라 신은 뒤에 창조를 완수했던 것이다. 이것은 ‘신의 싹트게 하는 힘, 또는 종자의 힘이며 모든 존재와 비존재 너머에 있는 무(無, Nichts)에서 수없이 많은 형태들로 옮겨 가는 것’이다. 이 창조적 이행을 신은 그의 아들 또는 ‘이를 통해 그가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예지, 사피엔치아(Sapientia)를 통해 완수한다. 그 예지에서 ‘신’은 우주를 창조한다.. 파라셀수스(Paracelsus)의 제자 게르하르트 도른(Gerhard Dorn)은 연금술의 완수를 신의 영(靈)에 있는 이 ‘우누스 문두스’와 인간과의 합일에서 보았다.³⁷⁾ ‘우누스 문두스’의 체험을 도른은 ‘영원에 이르는 창’ 또는 영원한 세계에 이르는 ‘공기 구멍’의 열림이라고 기술했다. 이와 같은 ‘자기(Self)’의 체험은 선불교의 깨달음, 동양의 사마디(삼매경), 혹은 중국의 득도(得道)의 체험과 비교된다. 우리의 제약된 인간적 삶은 오직 ‘영원에 이르는 창’을 통해서 무한한 것과 관계를 맺을 때라야 뜻이 있다.”³⁸⁾

■ 감사의 글

소중한 체험과 분석 과정의 일부를 본 논문에 실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눌 것을 기꺼이 결심 해주신 세 분 피분석자 A, B, C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 (1) Jung CG. Commentary on “The Secret of Golden Flower. CW 13.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Ltd.;1929. p.44-54.
- (2) 이부영. 자기와 자기실현. 서울: 한길사;2002. p.80.
- (3) 이부영. 자기와 자기실현. 서울: 한길사;2002. p.83.
- (4) Jung CG. Aion, CW 9-ii.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Ltd.;1951. p.56.
- (5) 이부영. 자기와 자기실현. 서울: 한길사;2002. p.55-58.
- (6) 폰프란츠/이부영 외 옮김. 개성화 과정. 인간과 무의식의 상징. 서울: 집문당;1983. p.166.
- (7) Rhi BY. Textbook of Analytical Psychology. 3rd edition. Seoul: Iljogak;2011. p.215-216.
- (8) C.G. 융/C.G. 융저작번역위원회 옮김. 정신요법의 기본문제. 서울: 솔;2004. p.86.
- (9) Jung CG. The Philosophical Tree. CW 13.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Ltd.;1954. p.253-341.
- (10) C.G. 융/C.G. 융저작번역위원회 옮김.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서울: 솔;2004. p.164-168.
- (11) M.L. 폰프란츠/심상영 옮김. 융심리학과 고양이. 여성적인 것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 서울: 한국심층심리연구소;2013. p.91-92.
- (12) C.G. 융/C.G. 융저작번역위원회 옮김. 인격과 전이. 서울: 솔; 2004. p.229. p.344-345.
- (13) Sibylle Birkhauser-Oeri. The Mother. Archetypal Image in Fairy Tale. Toronto: Inner City Book;1988. p.144.
- (14) Chevalier J & Gheerbrant A(tr. by Buchanan-Brown). The Penguin Dictionary of Symbols. London: Penguin Books;1996. p.977-978.
- (15) C.G. 융 /이부영 옮김. 현대의 신화. 서울:솔;2013. p.62-67‘
- (16) M.L. 폰프란츠/이부영 옮김. C.G 융. 우리 시대 그의 신화. 서울: 한국융연구원;2016. p.162.
- (17) C.G. 융/C.G. 융저작번역위원회 옮김. 인격과 전이. 서울: 솔; 2004. p.229. p.344-345.
- (18) 김계희. 분석 과정에서 꿈과 환상으로 나타난 ‘신의 육화’ 상징의 의미와 치유적, 창조적 작용에 관한 고찰. C.G. 융의 ‘자기실현’과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2017;54:319-320
- (19) Jung CG. Psychological Types. CW 6.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Ltd., 1921. p.814-829.
- (20) C.G. 융/C.G. 융저작번역위원회 옮김. 인격과 전이. 서울: 솔; 2004. p.269-271.
- (21) C.G. 융/C.G. 융저작번역위원회 옮김. 인격과 전이. 서울: 솔; 2004. p.263, 350-351.
- (22) Hannah B. The Archetypal Symbolism of Animals. Lectures given at the C.G. Jung Institute, Zurich, 1954-1958. Wilmette, Illinois: Chiron Publications;2006. p.129-263.
- (23) Jung CG. Aion. Research into the Phenomenology of the Self. CW 9ii.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1969. p. 249-250.
- (24) Jung CG. Visions.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1997.
- (25) Jung CG. Nietzsche’s Zarathustra.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1998.
- (26) Jung CG. Paracelss as a Spiritual Phenomenon. CW 13.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Ltd.;1942. par. 180.
- (27) Jung CG. The Psychology of Kundalini Yoga, Notes of the Seminar Given in 1932.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Ltd.;1994. p.20-25.
- (28) Jung CG. The Philosophical Tree. CW 13.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Ltd.;1951. p.328-337.
- (29) Jung CG. Psychological Analysis of Nietzsche’s Zarathustra. Unpublished seminar notes. Recorded and mimeographed by Mary Foote;1935. p.131.
- (30) Meier CA. Psychosomatic Medicine from the Jungian Point of View, C.A. Meier. Soul and Body. Santa Monica: The Lapis Press;1986. p.168-189.
- (31) Stein R. Body and psyche. An archetypal view of psychosomatic phenomena. Spring;1976. p.66-80.
- (32) Abt T. Archetypische Traume zur Beziehung zwischen Psyche und Materie. Heidelberg: Spring;1994.
- (33) 이부영. 정신과 신체. 분석심리학적 입장에서. 심성연구 2004; 30:1-32.
- (34) 김성민. 마이스터에크하르트트의 신비주의와 분석심리학. 신학과 실천 2014;41:311.
- (35) C.G. 융/C.G. 융저작번역위원회 옮김. 원형과 무의식. 서울: 솔; 2002. p.34.
- (36) C.G. 융/C.G. 융저작번역위원회 옮김.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서울: 솔;2004. p.82-84.
- (37) M.L. 폰프란츠/이부영 옮김. C.G 융. 우리 시대 그의 신화. 서울: 한국융연구원;2016. p.265-266.
- (38) M.L. 폰프란츠/이부영 옮김. C.G 융. 우리 시대 그의 신화. 서울: 한국융연구원; 2016. p.268.

연구목적

자연스러운 본능으로서의 배고픔과는 다르며, 의식의 자아를 습격하듯이 위협적으로 찾아들기도 하며, 정서적 고통을 수반하기도 하는, 낯설고 이질적인 '이상한 배고픔'과 '강박적 폭식충동'이, 분석과정에서 어떤 경과를 취하며 어떻게 해소되고 치유될 수 있는지를 고찰하고 연구하고자 한다. 증상으로 체험되던 고통의 목적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식이장애' 증상군을 이해하고 조명하는 하나의 관점과 치료방법으로서, 분석의 치유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 법

2008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이상한 배고픔'과 '폭식충동'을 주소로 용인정신병원 외래를 방문한 A, B, C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주 1~2회, 1회에 55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의식과 현실의 상황, 어린시절을 포함한 개인사 및 가족력과 더불어 무의식(꿈, 환상)을 함께 살펴보았다. 분석과정의 기록이 본 연구와 논문의 토대가 되었다.

결 과

- 1) 의식과 무의식(꿈, 환상)을 함께 살펴나가고 꿈의 상과 상징을 주관단계로 이해하는 분석 과정을 통해서, '무의식의 의식화'와 '인격의 창조적 변환'이 진행되었으며, 피분석자 모두에서 '이상한 배고픔'과 '폭식충동'의 호전과 치유가 진행되었다.
- 2) 피분석자들의 꿈과 환상에서 '전체성의 원형(자기원형)'으로 볼 수 있는 '뱀'의 상(Imago)이 공통적으로 나타남이 관찰되었다.
- 3) 피분석자C의 환상에서 폭식충동이 뱀의 '상'으로 변환됨으로써 폭식충동이 점차 사라지고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게 되었다. 투사(전이)를 인식하고, 외부대상(분석가)과의 분리(separation, detachment)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무의식적이었던 심리적 내용이 인식됨으로써 '의식과 무의식의 합성'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되었다.

결 론

피분석자 A, B, C에서 배고픔과 폭식충동은 자신의 본성과 개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전체가 되는 '자기실현'을 목적지로 하며, '무의식의 의식화 · 인격의 창조적 변환 · 세상과의 창조적 관계변환'으로 귀결되는, '창조적 충동'이라고 볼 수 있다. '창조(재탄생)'라는 목적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의식의 자아가 그 의미를 깨닫기 전에는 정서적 고통과 본능적 충동으로 체험되기도 하는 '창조적 충동'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 '상'과 '상징'으로 드러나게 됨으로써, 의식의 자아에게 그 의미가 알려지게 된다.

중심 단어 : 배고픔 · 폭식충동 · 상 · 상징 · 분석.